

「주체의 인테리론」: 이론과 실제

金 英 秀

I. 머리말

II. 「주체의 인테리론」

: 주요 개념 및 이론체계

III. 「인테리 정책」의 전개과정과 「인테리」관

IV. 맺음말

: 「주체의 인테리론」의 체제규정성 문제

I. 머리말

북한 계급정책의 목표는 조선로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사회의 기본계급을 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는 다름아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계급적 표현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주체의 인간 개조사업'의 주요 과제이다.

그런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는 그 과제의 실현

과정에 있어 순차성을 지니고 있다. 즉, 온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혁명화한 후, 이를 토대로 모든 성원을 혁명의식을 가진 노동자로 만든 다음, 이들을 높은 문화수준의 「인테리」로 개조해 가겠다는 단계적 실현의 정책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북한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계급정책의 기본방향인 동시에 최종목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40조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3대혁명 실현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에 잘 나타나 있다.¹⁾

1993년 현재 북한은 그동안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추진해 온 결과, 약 1백 66만명의 「인테리」를 육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²⁾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인테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왜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테리」를 계급정책의 마지막 계급성분으로 설정해 놓았는가? 과연 「온 사회의 인테리화」란 어떤 상황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 실제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테

1)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1975년 10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요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542와 p.592 참조.

2) 북한은 전체 인테리 숫자를 기회있을 때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1972년 50만, 1974년 60만, 1980년 1백만, 1983년 1백 20만, 1985년 1백 25만, 1987년 1백 30만, 1989년 1백 35만, 1990년 1백 40만, 1991년 1백 50만, 1992년 1백 60만 명에 이어 1993년 현재는 1백66만 명의 「인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 숫자는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435; 같은 책, 제29권 (1985), p.478; 같은 책, 제35권 (1987), p.239; 내외통신사, 『북한용어 3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3), p.201 참조.

리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런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주체의 인텔리론」: 주요 개념 및 이론체계

1. '인텔리'의 정의³⁾

북한은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을 '인텔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적으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망라한 개념으로서, 국가주권이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별되는 집단이나 계급이 아닌 사무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텔리'로 부르고 있다.⁴⁾

「사무직 인텔리」는 평양시 사무원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각 기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행정 부문, 경제관리 부문, 교육·연구 부문, 출판·보도 부문, 문학·연구 부문, 보건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술직 인텔리」는 각종 기업소나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텔리」는 행정 및 경제관리, 교원, 과학자, 언론인, 문학·예술인, 의사, 기사 등 지식인 집단의 보편적 범주에 속하는 직업 종사

3) 이 부분은 『북한연구』, 제16호 (1994 여름)에 발표한 “북한의 ‘인텔리’개념과 ‘인텔리정책’”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미 발표한 내용을 「주체의 인텔리론」이라는 틀로 묶어 「주체사상」이론체계 속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 내용과 구성을 부분적으로 수정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4)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가지고 일한다는 중국의 「뇌력공작자(腦力工作者)」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텔리」개념에 대해서는 Sylvia Chan, “Intellectuals and Reform,” Andrew Watson (ed.), *Economic Reform and Social Change in China* (London: Routledge, 1992), pp.91~93; Fei Xiaotong, “La Modernisation de la Chine et le Probleme des Intellectuels,” *La Chine en Construction*, No.4 (1983. 4), p.10 참조.

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⁵⁾

지식인 정의문제는 서구 지성사의 커다란 논쟁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만 해야 할 지, 사회적 기능 또는 직업의 성격으로 규정해야 할 지, 아니면 의식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분류해야 할지 그 기준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예컨대, 그람시는 지식인의 기준으로 사회적 기능을, 굴드너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굴드너는 지적 관심이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데 있는 부류와 관심이 주로 비판적이고 해석적이어서 흔히 정치적인 데 있는 부류를 구분하여, 전자를 '인텔리겐차'로 후자를 '지식인'으로 구분하기도 했다.⁶⁾

북한의 '인테리'는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지식인(intellectual)'과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인테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김일성 저작집』을 비롯한 북한 간행물들에서 아무런 구별없이 '인테리'와 '지식인'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굴드너의 기준에 따른다면, 북한의 '인테리'는 '인텔리겐차'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체제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이른바 '창조적 지식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고 '기능적 지식인'의 존재만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사회발전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테리'를 '자본주의 사회의 인테리', '식민지·반식민지 사회의 인테리', '사회주의 사회의 인테리'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지위와 역할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5) 최근 의사가 '인테리'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음이 귀순자들의 증언에서 발견된다.

월간조선 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146.

6) Antonio Gramsci, 'The intellectuals' in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eds. and trans.),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1), pp.5~23; Alvin W. Gouldner, *The Future of Intellectuals and the Rise of the New Class*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pp.28~30.

노예사회에서 발생한 「인테리」는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러 가장 높은 발전단계에 도달한다고 보고, 서로 다른 계급의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또는 저런 계급에 복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예컨대, 자산계급 출신 인테리, 소자산계급 출신 인테리, 노동자·농민 출신의 인테리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인테리」는 그 계급적 기초가 다양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계급적 목적에 이용당하거나 그의 옹호자, 변호자로 복무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즉, 「자본주의사회의 인테리」는 자본가에게 복무할 것인지 노동계급에게 복무할 것인지를 놓고 망설이는 동요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심성과 보신주의, 공명심과 출세주의, 교만심과 같은 착취사회 인테리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계급적 위치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⁸⁾

또한 착취사회 인테리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식민지·반식민지사회에서의 인테리 고유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식민지·반식민지사회의 인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혁명성과 애국심을 갖고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노동자·농민들과 혁명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는 교량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북한은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7)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거의 모든 인테리들이 부르주아지에게 복무하는 머슴의 역할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인테리들의 상층은 그들의 사회적지위로 하여 자산계급과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자산계급은 인민의 이익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협하며 자기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테리들을 리용하고있습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187.

8)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293; 신언갑, 『주체의 인테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56.

인테리출신 차광수동지를 들고 있으며, 남조선 사회의 인테리도 결국 이 유형의 인테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⁹⁾

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를 「인테리」의 전형으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앞의 두 유형과는 달리 이중성과 동요성을 띠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농민과 다름없는 근로자로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사회발전의 귀중한 밑천이 되고 있다는 뜻에서 이들을 「근로인테리」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다음 인용에서 보다시피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과 다름없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농민은 논밭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인테리는 책상머리에서 연구를 하고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를 근로인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¹⁰⁾

이러한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들에게는 「인테리」의 본질적 특성인 이중성이나 동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이고 계급적인 모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들이 지식과 기술을 많이 가질수록 「인테리」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적대적 요소의 영향이 있으며 사회생활의 이곳 저곳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인테리」들의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사상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과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은 「오랜 인테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국한된 현상일 뿐이지, 결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

9) 앞의 책, pp.66~74.

10)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293.

주의사회의 인테리」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인테리」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성과 동요성을 모르는 「새 인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서 볼 때,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의 「인테리」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자」는 데서의 「인테리」는 그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전자의 「인테리」는 지난 날 착취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소위 「오랜 인테리」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인테리」는 해방 이후 새로 양성된 지식층으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민족간부」로서의 「새 인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¹⁾

2. 이론체계

북한에서는 「인테리」유형이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났듯이 「인테리 문제」도 사회발전의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발생하게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테리」들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인테리 문제」의 해결방안인데, 이는 문제의 본질상 사람과의 사업을 뜻하는 「사람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인테리 문제」와 관련된 논리를 보면, 우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테리」를 계급사회에서의 소수특권자로서 간주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이 부르조아의 임금노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봄으로써 「인테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대신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부르조아 인테리들을 이용하는 문제

11) 북한에서는 「민족간부」를 「새로운 인민적 인테리」라는 의미로 정의함으로써 「새 인테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348.

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레닌이라고 보고 있다. 레닌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남긴 과학, 기술, 예술 등 일체의 문화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구사회기의 인테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그 후 스탈린은 「인테리」 흡수를 제도화하고 구체화시킨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과 스탈린은 「인테리」를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인테리」를 어떻게 사회적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착안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¹²⁾ 이것이 「인테리 문제」의 본질인데, 김일성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인테리 문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논리이다. 즉, 노동계급과 그 당이 「인테리」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 가는 「인간개조사업」이 바로 「인테리 문제」임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인테리 문제」의 해결에 대한 논리는 간단하다. 이는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새로운 인테리들을 키워내는것과 함께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들의 문제를 옮겨 풀어나가는것”이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¹³⁾ 우선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기 이전 시기의 「인테리 문제」는 주로 「인테리」들을 노동계급의 편,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고,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새 인테리」를 키우는 것과 함께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12) 신언갑, 앞의 책, pp.9~12.

13)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252.

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 문제」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김정일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¹⁴⁾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인테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징인 공산주의적 성격에 맞게 「인테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만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경시하여 「인테리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만 보고 「인테리」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한다면 좌우경적 편향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적 차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남아 있고 적대적 요소의 영향이 외부로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인테리 문제」의 해결을 계속혁명의 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는 「인테리」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노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강화해야 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단련시키고, 혁명과업 수행과정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과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테리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이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 문제」를 보는 관점이다. 그러면 「인테리 문제」의 종국적 해결방안으로서 제기된 「온 사회의 인테리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논리에 의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 문제」해결은

14) 김정일, “인테리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457~467; 강운빈, 「인간개조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조국, 1989), pp.122~130; 신언갑, 앞의 책, pp.34~43.

「인테리」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성원들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인테리 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인테리」 자신의 공산주의적 개조와 노동자, 농민 등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 정도로 높혀 궁극적으로 「인테리」 계층을 없애는 데 있다. 만약 「인테리」의 공산주의적 개조가 실현되지 못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 수준이 대학졸업 정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인테리」는 그대로 남게 되며, 결국 「인테리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그 내용에 있어 계급적 문제와 문화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즉, 인테리화하여야 할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이들의 문화지식수준의 제고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⁵⁾라는 김일성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교육부문의 최종단계 과업으로 선정하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내용과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학수준의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울러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교육과 인민대학습당을 통한 사회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⁶⁾

이상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이루기 위한 논리이다. 「인테리」에 대한 주체적 해명으로부터 혁명발전의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되

1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542.

16) 신언갑, 앞의 책, pp.276~289.

는 「인테리 문제」와 그 본질적 내용, 「인테리 문제」의 해결과 그 중국적 해결의 방도가 바로 「주체의 인테리론」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인테리론」의 내용이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전10권)의 제6권 『인간개조리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주체의 인테리론」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인 이른바 「주체의 전일적 체계」 가운데 「리론」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Ⅲ. 「인테리 정책」의 전개과정과 「인테리」관

이제 「주체의 인테리론」에 의한 「인테리 정책」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나타난 북한의 「인테리」관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1.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정권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 지도부는 일본 식민지 지배시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받은 「오랜 인테리」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혁명정권 초기 단계에 기술인력의 부족과 문맹이라는 커다란 난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어 은행, 공장, 운송 등 사회의 주요 기능을 맡고 있던 일본인들이 한꺼번에 물러감으로써 초래된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되도록 많은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참여해 주기를 원했다. 그 명분으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그들은 외국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적 억압과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민족적이고 민주

적인 혁명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내세웠고, “우리 당은 그들을 새로운 사회건설에 끌어들이고 근로인민에 봉사하는 지식인으로 개조하는 노선을 채택”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¹⁷⁾ 요컨대,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낡은 체제에서 교육받은 ‘오랜 인테리’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해방 직후 10월 13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원 및 열성자 연합대회’에서 김일성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면서, 혁명의 동력으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애국적 지식인(인테리),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때의 애국적 지식인이 앞에서 언급했던 ‘식민지·반식민지사회의 인테리’를 지칭한다.

10월 14일,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도 “민주주의 새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민들이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¹⁸⁾을 역설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 차원에서 ‘인테리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한편, 혁명 초기에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정당과 파벌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을 벌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랜 인테리’의 필요성을 더욱 고조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총원이 우선이고 훈련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의 초기 총원 유형방식이 이런 배경에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훈련 후총원이라고 하는 중국공산당의 유형과는 정반대의 형식이었다.¹⁹⁾ 그 결과 ‘오랜 인테

17)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87.

18) 김일성,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동아일보사 편, 『원자료로 본 북한』 (『신동아』 1989년 1월호 부록), p.34.

19) 조재관, “북한에서의 공간간부의 등장과 역할: 중공간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8권 제4호 (1984/5 겨울), p.127.

리」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이라는 조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오랜 인테리」들을 흡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새 인테리」를 육성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1945년 11월에 민족보위부의 간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최초의 군·정대학인 평양학원이 설립되고, 1946년 8월에는 노동자·농민출신 청년들을 훈련시킬 훈련소들이 설립되었으며, 1947년 3월에는 만경대 혁명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항일빨찌산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 인테리」충원체계를 빠른 속도로 수립해 나갔다.

「오랜 인테리」를 흡수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정당을 합당하는 방법도 실행되었는데, 조선신민당이 창당된 후 조선공산당과 합당된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독립동맹의 정치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1946년 2월 26일 조선신민당의 창당대회가 열렸는데, 이 당의 계급적 토대는 조선공산당이 노동자와 빈농출신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데 반해 주로 중농·도시 소시민·인테리 등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 후 조선신민당은 창당 7개월 만인 7월 29일 조선공산당과의 무조건 합당 발표를 통해 새로 태어난 북로당에 사실상 흡수되고 말았는데, 합당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바로 혁명의 중심인 조선공산당이 「인테리」를 포섭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데 있었다.²⁰⁾ 그 결과 북로당 창립대회 당시 「오랜 인테리」를 중심으로 한 사무원들이 참석대표 801명의 약 48%(385명)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략 정도의 학력을 가진 대표가 약 27%(214명)에 이르게 되었다.²¹⁾

그리고 초기의 「인테리 문제」를 검토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인재유치작전에 의한 「오랜 인테리」들의 월북현황이다. 북

20) 심지연,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노선,” 고현욱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100~108.

21)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 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201~202.

한은 1946년 1월부터 민주조선 건설에 필요한 학자와 기술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의 「오랜 인테리」들을 설득하는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초대 내각의 교육상을 지내고 노동당 중앙위원을 지낸 백남운이다. 해방 공간에서 남조선신민당 위원장과 조선학술원 원장을 맡으면서 평양에서 활동하던 사회경제사학자 김광진과 함께 인재유치사업을 벌인 결과, 김석형·박시형 등의 역사학자, 도상록·계용상·최재우·강영창 등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월북하게 되고, 이단·문예봉·황철·박영신 같은 예술인 및 이기영·한설야·안함광·이동규·송영·박세영 등의 문인들도 평양으로 올라 가게 된다.²²⁾

한편,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한 후 민주조선 건설을 위해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사회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수립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구조의 혁명적인 변화와는 달리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쉽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사상개조운동 없이는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른바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운동은 1946년 12월부터 1948년 초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운동을 통해 처음으로 「오랜 인테리」의 사상개조운동이 함께 전개된다.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애국운동·중산운동·절약운동 등을 펴는 동시에 애국사상·민주사상·주인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는데,²³⁾ 이는 1946년 11월 25일에 열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

22) 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제간6호 (1989 가을), pp.300~337; 이광린, 「북한의 역사학」, 『동아연구』, 제16집 (1988년 12월), pp.47~6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3), pp.186~194.

23) 당시 이 운동이 추구한 목적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일제사상잔재인 퇴폐하고 반동적인 낡은 사상들을 청산하고 새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긍지를 지니고 새 조국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을 철저한 반봉건주의적 사상과 애국적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혁명적 민주기지를 굳게다지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

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북조선 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이라는 김일성 보고를 계기로 출발하게 된다. 그 후 12월 3일 북로당 중앙위원회 제14차 상무위원회에서 "노동자·농민 등 근로대중은 낡은 사상의식과 봉건유습에서 벗어나 애국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24) 북조선 민전을 비롯, 직업동맹·농민동맹·여성동맹·민주청년동맹·문학예술동맹 등 각 사회단체가 잇달아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게 된다.

이 운동이 「오랜 인테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단지 문학계 내의 변화를 통해 「인테리」들에게 미친 영향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²⁵⁾

사상의식 개혁을 위한 투쟁전개 방침이 전해지자 북한 문학계는 이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²⁶⁾ 우선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12월 7일 중앙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동맹에 가입된 작가들의 낡은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문학에 있어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인간형을 그릴 것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 문학에 있어 무사상성, 무정치성, 형식주의, 자연주의, 심리주의, 부르조아 민족주의, 세계주의 등과는 비타협적 투쟁을 벌일 것을 역설하게 된다.

었다." 『근로자』, 1962년 4월호, p.74.

24) 안함광, 『조선문학사』 (연변: 연변교육출판사, 1956), p.370.

25) 문학작품의 저술에 있었던 변화를 통해 지식인 정책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제임스 카튼, 「중공지식인과 문화적 개혁」, 이상우 편, 『중공의 새 진로: 개혁의 방향과 전망』 (서울: 법문사, 1986), pp.290~293 참조.

26)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부문이 바로 문학계이다. 이 운동이 이데올로기 투쟁인만큼 그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다루는 문학예술이 그 첨병에 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용, 「초기 북한문학의 형성과정과 냉전체제」,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pp.95~107 참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른바 「옹향사건」인데, 이는 12월 20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상무위원회가 원산문학동맹에서 발행한 시집 『옹향』에 실린 시를 반동적이고 퇴폐적이라고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하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시집 『옹향』에는 민주건설에 헌신하는 인민들과 보조를 맞추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된 우울과 염세와 생활에 대한 중상과 외곡과 환멸로 일관된 시들이 출현하였다. 그것들은 모두 현실을 등지고 소부르조아적 리기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상들이 당의 령도에 의하여 조국 창건에 껴기한 인민 대중 속에서 용납될 수는 없다”²⁷⁾

위 인용에 나타나듯이 이 사건은 「오랜 인테리」들의 문예운동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책적인 간섭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최초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47년 3월 28일 북로당은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문학예술분야에서 진행된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을 검토하고 당 중심의 문학지도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이후 「오랜 인테리」를 개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오랜 인테리」출신의 ‘책상우의 사무’가 비판 대상에 오르면서 작가들이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 등 현지에 파견되어 대중 속에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든가, 신인육성과정에 나타난 편협한 문단주의적 성향이 비판받아 새로운 작가를 육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 것이 그 예이다.²⁸⁾

한국전쟁 시기에는 점령지역에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북한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유사한 각종 정책이 시도되었다. 인민위원회, 농촌위원

27) 안함광, 앞의 책, p.371.

28) 앞의 책, pp.371~374.

회를 통해 토지를 재분배하고 군중심판제도에 의거하여 적대계급을 약화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월남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전사자, 전상자 및 인민군의 가족에 대해 각종의 특혜를 베푸는 등 체제의 계급기반을 공고히 하는 적극적인 계급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후 휴전이 되자 1953년 8월에 당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후 경제복구·발전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북한이라는 혁명기지를 사회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할 것을 기본 목표로 내세우게 되는데, 북한은 이를 위해 농업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에 경주한 결과 1958년 8월에 마침내 이 두 가지 목표를 거의 달성하게 된다. 그로써 도시에서의 개인상업 및 사기업자와 농촌에서의 부농과 일부 중농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형식상 북한에는 사회주의적 과도가 과업이 끝나 노동자와 협동농민, 그리고 이에 복무하는 「사회주의 인테리」 이외에는 다른 계급이 있을 수 없는 계급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업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혁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인테리 문제」에는 큰 관심을 돌릴 수가 없었다. 1956년 12월 전원회의가 열린 후부터 「오랜 인테리」들이 지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을 공언하기는 했으나,²⁹⁾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내에서 반종파투쟁을 벌이는 것이 급선무라 구체적으로 「인테리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2. 「1958년」과 「인테리」의 위상

「인테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이다. 그 해 평양에서 열린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의 강습회 마지막

2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400.

날인 8월 9일, 김일성은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를 계속 높여가야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주의건설에 장애가 되어온 지식층 속에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대해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계속혁명을 가져올 수 없음”³⁰⁾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틀 후 8월 11일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도 기계공업부문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해야 하고 신비주의와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침내 사회주의 건설단계에서 나타난 ‘인테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계급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9월 16일에 개최된 ‘전국 생산혁신자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인테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연설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자들의 방해를 물리치는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에 매달리고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신비성에 매달리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사상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해로운 경향은 일부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로동자, 농민을 무식하다고 업수이여기는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박사, 학사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아닙니다.”³¹⁾

30) 김일성,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2.

3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520~523.

1958년 9월 16일자 『로동신문』, 사설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재차 보수주의와 소극성에 반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강도 높게 게재되어 있다. 백두연구소 편,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백두, 1989), pp.22~27 참조.

이러한 일련의 연설을 통해 「오랜 인테리」들의 부정적 성향을 언급해 오다가 9월 26~27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에서 드디어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전체 당원에게 호소하는 당 중앙위원회 편지(일명 「붉은 편지」)를 채택하게 된다.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 운동은 처음에는 경제부문의 기술자 및 관리간부들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전체 「오랜 인테리」에게까지 파급되었는데, 결국 계급정책의 측면에서 「오랜 인테리」를 숙청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당의 계급적 기반인 노동자·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벌인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공업화를 대비한 노동력 재배치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운동의 결과 상당수의 과학자·기술자·사무원들이 노동을 통한 성분개조라는 명분아래 직장을 옮긴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약 1개월간 실시된 「붉은 편지」운동의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 귀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만큼 「오랜 인테리」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도 적지 않은 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를 반대하라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보수주의사상을 반대하라는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반대하라는것은 아닙니다. 많은 동무들이 이 점을 똑똑히 깨닫지 못하고 보수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한 까닭에 그들의 열의를 꺾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소극적으로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이제는 로동계급의 세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³²⁾

이러한 「오랜 인테리」에 대한 숙청사업을 통해 인테리층의 자본주의적,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노동자·농민의

3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144.

사회주의적 개조와 더불어 인텔리층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일단락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제 북한에서는 적어도 형식상 계급적 의미의 적대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 문학계 역시 전후 복구사업에 이바지할 것과 더불어 교조주의·민족허무주의·사대주의 경향을 퇴치하고 민족적 독자성과 통일성을 살리며,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개념인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창작에서는 도식주의가, 평론에서는 사회학적 비속화 문제가 비판을 받게 되고,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해 문예를 군중적 기반 위에서 발전시킬 것이 제기되면서 신인육성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활발히 논의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며,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서 자라난 노동자 출신 작가들이 배출됨으로써 기존의 「오랜 인텔리」출신 작가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된다.

“문학의 무계급성을 지껄이던 악명높은 ‘문화로선’제창자들, 반동 시집 『옹향』을 들고 예술지상주의를 부식시키려던 시대착오적인 쓰레기들, 미제 침략에 발 맞추어 부르조아 반동사상을 부식시키려 피하던 문학대렬내의 음흉한 반혁명분자들, 그리고 국제기회주의 사조에 편승하여 우리 문학에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퍼트리던 반당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낡고 반동적인 것들은 모두 당내 문예방침을 받들고 나선 우리 문학의 힘찬 전진앞에 여지없이 격파되고 말았다. 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문예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우리가 벌린 계급투쟁, 사상투쟁은 복잡하고 심각한 것이었다.”³³⁾

이 글만 보더라도 전후 복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주체」가 제기되고 반종파투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수많은 「오랜 인텔리」들이 갖가지 미명

33) 리수림,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힘차게 전진하여 온 우리의 주체문학,” 『조선문학』 (1982년 5월호), p.65.

아래 비판받고 문단에서 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화·이원조·설정식·김남천·조일명·김순남·이태준·안막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결과 1958년 말 이후에는 문학을 놓고 비판하는 모습은 더 이상 북한 문학계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1958년 말 이후 사회경제적 의미의 계급개념이 소멸되자 전체 인민에 대한 계급 교양사업이 중시되고 인민대중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사업이 제기된다. 당은 이 시기부터 공산주의 교양 강조, 의식개조를 통한 사상혁명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완성됨에 따라 복잡한 계급 성분을 노동계급으로 단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우선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결과 주민의 정치적 구성이 더욱 복잡하게 됨에 따라 조선로동당이 실시한 「뚜껑벗기기 운동」을 들 수 있다. 1961년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에 따라 반혁명적 요소인 「뚜껑」을 벗기려던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우경적 과오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중지되고 말지만, 1950년대에 벌인 「오랜 인테리」숙청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발전에 해가 된다는 점에서 시작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64년에 「각계각층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조선로동당 결정에 의해 「주민등록사업」이 실시되고, 1967년부터 「51개 계층 구분사업」이 실행되는데, 이런 일련의 계급정책을 통해, 「오랜 인테리」는 계급적 토대를 기준으로 할 때 「복잡한 군중」 또는 「동요계층」으로 분류되고, 해방 이후 양성된 「새 인테리」는 「기본 군중」 또는 「핵심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사회적 성분을 통한 사상혁명을 실행해 나가던 중, 1967년 또 한번의 숙청이 일게 되는데, 이 숙청은 당 내부문제에 국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숭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던 시

점인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숙청대상자는 당내 고위직에 있던 박금철·이효순·허석선·림춘추·김창만·고혁 등이었다. 이들 숙청의 결정적인 이유는 당내에 두 가지 규율을 두어³⁴⁾ 김일성 유일지도성 확립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었는데, 숙청대상자들이 주로 조국광복회 관련인사들이란 점에서, 만약 김일성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방해가 된다면 자기 계파의 「오랜 인테리」도 제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³⁵⁾

그 후 1968년 6월 14일 김일성은 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³⁶⁾란 연설을 통해 「인테리」를 혁명화하는 문제와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문화혁명, 베트남전쟁 등 심상치 않은 주변 정세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실행된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온 사회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가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당의 계급정책을 실천적 대중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3대혁명 소조운동」이다. 1973년 2월에 조직된 이 운동의 의의는 청년민족간부인 「새 인테리」들의 정결과 「오랜 인테리」들의 풍부한 경험을 결합하여, 당과 국가기관 전체에서 원활한 세대교체를 시행하기 위한 대중지도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당의 혁명적 교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받은 「새 인테리」들이 당의 후비대로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문제는 적대 계층이나 반혁명분자 출신인 「복잡한 군중」의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새롭게 육성된 「복잡한 군중」의 자녀들이 당과 혁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었다.

34)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300.

35) 이종석, 앞의 글, pp.260~264.

36)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356~392.

김일성은 이에 대해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람들의 성분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본인이 혁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안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성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³⁷⁾ 이는 「복잡한 군중」출신의 자녀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온 「새 인텔리」육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만 가져 올 뿐 아무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북한은 「새 인텔리」들이 정신노동으로 근로자들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 참여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 또한 부단히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및 동구라파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북한은 일부 나라들에서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잘 하지 못하여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선전과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넘어가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 반당·반국가 활동을 앞장서 벌인 사실을 주장하면서 「인텔리」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그 실례로서 한·중수교 이후 1992년 9월 「전국교육부문일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정권수립 후 최초로 「전국지식인대회」를 열고 이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면서 사회주의 노선고수와 김정일 체제보위의 전위대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독려한 사실들을 들 수 있다. 평양 2·8문화강전에서 거행된 이 행사에는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해 당·정 고위간부들과 과학·예술·문학 등 각 분야 「인텔리」 6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노동당 교육담당비서 최태복은 “「인텔리」들은 당과 사회주의 위업에 충직한 투사가 되자”란 제목으로 보고를 한 후 각 분야 「인텔리」 39명이 나서 체제 고수와 김정일 보위 등

37) 김일성, “녀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p.133.

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

3. 「인테리 정책」에 나타난 「인테리」관

이러한 「인테리 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해 나타난 북한 「인테리」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이는 중국과 소련 등의 사회주의국가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선, 「인테리」에 대해 절충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계급정책자체가 중국의 모택동과 같이 「대파(大破)」와 「대립(大立)」의 양극단적인 해결책³⁹⁾을 쓰지 않고 보다 덜 과격하고 완만한 절충주의적 성향을 띠어 온 데 연유한다.

북한의 계급투쟁은 실제로 갈등을 일으키며 전개되기 보다는 오히려 「홍」과 「전」을 절충하는 선에서, 그리고 좌우경적 편향을 경계하는 선에서 실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⁴⁰⁾ 이는 모든 「인테리」를 노동계급화하고 모든 노동계급을 인테리화하는 운동이 계급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인테리 정책」은 중국과 같은 대대적인 국면전환기를 거치지 않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실행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테리」에 대해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도구주의적 관점을 취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테리」들이 절충주의적인 포괄성 속에서 「홍」과 「전」의 문제로 많은 박해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우대를 받아 온 점은 사실이지만, 당관리체제 아래서만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38) 내외통신사, 앞의 책, pp.200~201.

39)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의 지식인 정책을 「대파」와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존의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고 비판하는 「대파」과정에서 지식인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박해를 받았고, 낡은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는 「대립」과정에서 지식인은 강제노동에 끌려나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40) 장달중, 「북한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1993년 6월), p.8.

사용하도록 해 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인텔리」의 전문성이 「홍」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항상 정치적 목표를 실행하는 도구로만 허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지도층이 「비판적 인텔리」보다는 「기능적 인텔리」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인텔리」의 전문성은 언제나 당의 지도에 종속되는 양상을 띠어 왔다. 더욱이 동소평의 「신지식인 정책」에 의해 지식인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한 천안문 사태를 지켜보면서⁴¹⁾ 북한은 「인텔리」들의 「권력으로의 행진」⁴²⁾을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텔리」에 대한 도구주의적 태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반「인텔리」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인텔리 정책」이 실행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지식인 정책이 중국사회에 깊게 깔려있는 「반지식주의」(Anti-intellectualism) 풍조 속에서 실행되어 온 것과 러시아혁명 과정에서 볼셰비키와 「인텔리겐치아」 사이의 상호불신이 원인이 되어 볼셰비키 정권이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철저한 불신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인텔리」란 말이 모욕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온 소련의 경우에 비한다면 매우 대조적인 측면이다.

북한 사회에 반「인텔리」적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텔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역설해 온 김일성의 「인텔리」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배움의 정도로 사회의 위계질서를 수립해 온 전통적인 문화유형이 암묵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법가의 반지론이 강해 「반지식주의」가 강하게

41) Merle Goldman, "The Intellectuals in the Deng Xiaoping Era," Arthur Lewis Rosenbaum (ed.), *State and Society in China: The Consequences of Reform* (Boulder: Westview Press, 1992), p.193.

42) George Konrad et Ivan Szelenyi, *La marche au pouvoir des intellectuels le cas des pays de l'Est* (Paris: Seuil, 1979).

자리잡고 있는 정치전통에다 모택동의 부정적인 지식인관이 합쳐지면서 중국의 「반지식주의」를 낳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⁴³⁾

예컨대, 김일성은 “우리 당의 구성성분에는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인테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마치, 낫, 붓으로 되어 있는 우리 당의 마크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인테리의 절대다수는 이미 검열된 좋은 사람들입니다.”⁴⁴⁾라고 인테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해 왔던 데 반해, 모택동은 지식인을 “머리는 무거우나 다리는 허약하고 뿌리가 얇은 담장 위의 갈대, 입이 뽀족하고 겹질은 두꺼우나 속이 비어 있는 산 속의 죽순”⁴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식인의 지위에 대한 계급적 관점과 지식에 대한 실용적 관점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더욱이 4인방시대 지식인을 아홉번째 반동계급이라는 의미에서 「체노구(體老九)」라고 경멸했던 인식이 등소평의 「신지식인 정책」에 의해서도 고쳐지지 않고 「반자산계급 자유화운동」과 「반정신오염운동」 등을 통해 여전히 중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⁴⁶⁾ 소련의 경우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70여 년동안 모스크바대학 출신이 정치국원 자리를 차지한 예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텔리겐치아」출신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⁴⁷⁾

이러한 「인테리」에 대한 통치자 및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북한은 「은 사회의 인테리화」를 「인테리 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43) 중국의 「반지주의(反智主義)」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이양호, “중국지식인과 민주화,” 『중소연구』, 제15권 3호 (1991 가을), pp.95~98 참조.

44)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140~142.

45) 모택동, 『모택동선집』, 제3권 (북경: 민족출판사, 1970), p.1059.

46) 이양호, 앞의 글, p.66, P.97; 송성의, “중국의 지식인정책,” 『중소연구』, 제13권 2호 (1989 여름), p.51.

47) B. Lewyztzyz (ed.), *Who's Who in the Soviet Union: A Bibliographical Encyclopedia of 5000 Leading Personalities in the Soviet Union* (München: K.G. Sauer Verlag, 1984).

데 반해, 중국은 현재, 공부는 쓸모없다는 「독서무용론(讀書無用論)」과 정신노동자의 수입이 육체노동자의 수입보다 낮은 「뇌체도괘(腦體倒掛)」현상으로 인해⁴⁸⁾ 「신지식인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주체의 인텔리론」의 체제규정성 문제

이제 「주체의 인텔리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가 실제로 북한 사회내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체의 인텔리론」은 모든 「인텔리」들이 노동계급화되고, 모든 노동계급이 인텔리화되어 온 사회가 인텔리화될 때, 비로소 계층차이가 소멸된 「무계층사회」가 도래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인 이러한 「무계층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계급이 없는 「무계급사회」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단계에 가서도 노동계급 내에 인텔리계층과 비인텔리계층 사이의 계층적 차이가 남게 되기 때문에, 계층의 차이가 없는 「무계층사회」로 전진하는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무계급사회」와 「무계층사회」의 지향을 「역사의 진보」라고 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사회변화 논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진보성을 담지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회변화 논리의 현실적합성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주체의 인텔리론」이 추구하는 바대로 북한체제가 작동·운영되고 있는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주체의 인텔리론」이 사회변화의 단계적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인텔리의 노동계급화」와 「노동계급의 인

48) 충성의, 앞의 글, pp.69~72.

테리화」가 북한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현재 북한 지도부는 「인테리」를 완벽한 노동계급으로 만들기 위해 「금요노동」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인테리」의 노동계급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의 특성으로 인해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김정일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데서 「새 인테리」의 노동계급화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계급화 문제는 「인테리」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성원들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앤다는 정책목표가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농촌청년들 가운데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않습니다. 최근 몇해동안에도 전국적으로 농장원수가 몇 만명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이러저러한 구실로 도시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촌청년들은 농촌총각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않고 어떻게 하나 도시총각에게 시집을 가서 농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있습니다.”⁴⁹⁾

이는 1986년 11월 김정일이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벌릴데 대하여”를 강조한 지시의 한 귀절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 만 명을 언급할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노동계급의 인테리화」라는 이론적 목

49) 김재용, “도시청녀 시집와요,” 『사회평론·길』 (1994. 10), p.175에서 재인용.

표이다. 「인테리」를 포함한 사회 성원 모두를 혁명화하여 노동계급화한 후, 이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교육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의 확충이 일차적인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부메랑 효과」이다.

“교육을 받을수록 더 반동적이 된다.”는 모택동의 지적처럼 학력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기대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메랑 효과」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문제다. 고등교육인구의 증가는 그만큼 북한 통치권력에게는 힘겨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사회변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면, 북한의 「인테리」들은 점차 「이심분자(離心分子)」⁵⁰⁾인 반체제지식인으로 「번신(翻身)」하게 되어 결국 「지배계급의 무덤을 파는 사람」⁵¹⁾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 결과 북한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추방당했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인테리」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점은 현재 북한 사회구조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되고 있는 「근로인테리」의 두드러진 성장⁵²⁾과 관련시킬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주체의 인테리론」에 의해 증가된 「근로인테리」의 요구와 불만을 통치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이들의 「권력으로의 행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북한 사회에서 「주체의 인테리

50) 총성의, 앞의 글, p.42.

51) Sylvia Chan, 앞의 글, p. 111.

5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인테리」를 「신중간계급」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들에 의한 북한 사회변동을 분석·예측한 서재진,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575~617 참조.

론」이 가지는 체제규정력은 미약하다고 하겠다. 주요 원인의 하나는 「주체의 인테리론」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사회성원의 노동계급화'라는 이론적 전제가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있으며, 또 다른 원인은 「주체의 인테리론」으로 인해 생성된 「근로인테리」계층이 그 이론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데 있다.

결국, 「온 사회의 인테리화」란 구호를 내세워 「로동계급 단일지배체제」를 토대로 「인테리 단일지배체제」의 완성을 표방해 온 「주체의 인테리론」은 이제 그 이론적 전제의 비현실성과 이론실천과정에서 잉태된 모순으로 인해, 그동안 북한 사회의 「인테리 문제」 자체를 호도해 온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